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1. 27.(수) 12:00 (총 6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청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과장 전문관	신언성 김순	전화번호 043-272-0365

28~29일, 태풍급 강풍과 함께 급변하는 날씨 - 충청북도 29일(금)까지 3~8cm 적설 -

- 28~29일 최대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
- 시설물 파손 및 낙하물 유의
- 28일 충청북도 눈 또는 비, 빙판길 조심
- 내일(28일) 충청북도 1~5cm, 모레(29일) 충북중·남부 1~3cm
- 28일 오후~30일 오전 강추위, 체감온도 더 낮아 건강관리 유의
- 충북중·북부 및 산지 중심 아침 최저기온 -12℃ 이하



[1월 28일(목)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청주기상지청(지청장 이경희)은 **28일(목) 오후~29일(금)에 태풍급의 강한 바람**이 불겠으며 선별진료소 등 야외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 또한, **강한 추위와 함께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**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,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강조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청주기상지청은 **28~29일에 강풍과 강수**를 동반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고, 그 뒤를 따라 서쪽의 고기압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와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**28일** 낮 동안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충청북도 전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.
- 특히, **28일** 낮부터 서쪽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고기압에 의해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고,
- 이 영향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.
- 또한,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북중·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**29일**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청주기상지청은 **28일** 낮부터는 충청북도 전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 (시속 20~50km, 초속 7~14m)이 불면서 충청북도 전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하며, **29일까지도**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- “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강풍에 날리는 파손·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,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[강수 전망]

- 28일은 낮 동안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빠르게 통과하면서 충청북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28일 낮에 서쪽지역부터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후에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확대하겠고,
 - 28일 오후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되어 내리던 강수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.
 - 이후 찬 공기가 눈 구름대를 남동쪽으로 빠르게 밀어내면서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의 눈이 그치겠지만, 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북중·남부 지역은 29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시작부터 강수형태가 눈으로 내리는 충북북부(제천, 단양)를 중심으로는 최대 5cm 이상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
 -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리던 비나 진눈깨비가 눈으로 바뀌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면서 1~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하였다.

< 예상 적설(28~29일) >	
[28일 오후] 충청북도	1~5cm
[29일 새벽] 충북중남부	1~3cm

- 특히, 청주기상지청은 오후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 의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.

- 또한, 이번 강수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강수형태(눈과 비의 경계)를 결정짓는 지상의 기온이라며, ① 1~2℃의 미세한 차이에도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시점이나 적설이 달라질 수 있고, ②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고도와 지형에 따라 적설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
- 이에 청주시상지청은 지상 및 대기 하부(700~800m 상공)의 기온 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, 서쪽으로부터 구름대가 다가오는 **28일** 낮부터는 **1~2시간 간격으로** 보다 정확한 강수의 형태와 시작 시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상정보를 발표하겠다고며, 최신의 기상정보에 **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** 당부하였다.

[추위 전망]

-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28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30일 오전까지 매우 추울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9~30일은 충북중·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-12°C 이하로 내려가는 등 28일에 비해 $5\sim 10^{\circ}\text{C}$ 가량 크게 떨어져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.
- 청주기상지청은 “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$5\sim 10^{\circ}\text{C}$ 가량 높게 유지되면서 비교적 온화했던 상태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5°C 가량 낮은 상태로 급격히 낮아지는 만큼 체감하는 추위가 더욱 강하겠다”며
-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하는 것은 물론,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°C 가량 더 낮아지는 만큼 취약계층(노약자, 만성 질환자 등),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하였다.